

2017학년도 모의논술 예시답안(사회계)

논제 I

제시문 [가]~[바]는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공동체의 가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다룬 글이다. [가], [나], [라]는 공동체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는 반면, [다], [마], [바]는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가]의 ‘올타리치기’ 운동은 개인 소유권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됨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는 기업이 ‘환경세탁’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했으며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소송을 낸 것을 설명한다.

반면에 [다]는 기업이 이기주의를 넘어서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는 개인화된 냉혹한 사회 현실을 반성하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바]도 임대 아파트에 다양한 계층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혼합 정책을 통해 계층적 편견을 없애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490자)

논제 Ⅱ

제시문 [사]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책임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제시문 [나]는 비판받을 수 있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적 지원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여러 과제에 책임 있게 동참하는 것이 기업 윤리에 합당한 태도이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처럼 기업이 이윤 창출 외에도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윤과 사회적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다]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사회 기부나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화장품 판매 회사가 유방암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합하여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684자)

문제 III

TV 광고와 빈곤 퇴치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가 모두 2차 함수를 가지므로 TV 광고에 대한 투자를 x 라고 할 때 수익 함수는 $R_1 = a_1x^2 + b_1x + c_1$ 이며, 빈곤 퇴치에 대한 투자를 y 라고 할 때 수익 함수는 $R_2 = a_2y^2 + b_2y + c_2$ 형태를 가진다. TV 광고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즉 $x=0$ 일 때 수익 $R_1 = 50$ 이므로 c_1 는 50이다. 또한 $x=30$ 일 때 $R_1 = 1850$ 으로 최대이므로 $\frac{b_1}{2a_1} = 30$ 이고, $\frac{b_1^2}{4a_1^2} + c_1 = 1850$ 이다. TV 광고의 수익 함수 $R_1 = -2x^2 + 120x + 50$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 $R_2 = y^2 - 20y$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V 광고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수익 함수는 $R_1 + R_2 = -x^2 + 120x + 50 + y^2 - 20y$ 이다. 그리고 기업 홍보 기금이 50억 원이므로 $x + y = 50$ 이므로 $y = 50 - x$ 이므로, 이 기업의 수익 함수 $R_1 + R_2 = -x^2 + 40x + 1550$ 이다. 이것을 다시 풀면, $R_1 + R_2 = -(x - 20)^2 + 1950$ 이므로 기업은 TV 광고에 20억 원,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30억 원을 투자할 때 최대 수익 1,950억 원을 얻는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단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시문 [나]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공익이 반드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